



::성경과 유대인 I

필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성경학과에서 수학한 경험이 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네 번에 걸쳐 『성서마당』에 유대인에 대한 글을 기고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이스라엘 현장에서 일어나는, 유대인들을 둘러싼 갈등과 고뇌의 뒷밭에서 수확하는 거친 열매들을 현장감 있게 다루려고 한다. 우선 이번 호에서는 “유대인을 해부한다.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 그들은 누구이며 왜 싸우는가?”에 대해 언급을 하고자 한다. 다음 호에서는 “유대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글을, 나머지 두 호에서는 “유대인과 땅”, “유대인과 성경”이라는 주제로 글을 기고하고자 한다. 독자 여러분의 비평과 조언을 기대한다. God bless you!

유대인을 해부한다

-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 그들은 누구이며 왜 싸우는가? -

조성욱 <<< 총신교회 부목사/중동문제연구소 소장

1. 분쟁의 역사와 원인

팔레스타인 혹은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과 가자 지구는 양 민족을 대표하는 고대 도시로 3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간의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 모세의 인도로 동쪽, 즉 해가 뜨는 쪽으로 이동했다. 이것은 주전 1250년경인 후기 청동기 문명 때의 일 이었고, 이보다 60년이 늦은 1190년경에는 해양 민족인 ‘필리스티아’(philistia: 침입해 들어온다) 민족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가자 지구로 들어와 정착해 살기 시작했다. 이후 양 민족 간의 갈등은 수천 년 간의 역사를 통해 계속되어 왔다.

양 민족이 겪은 갈등의 긴 역사와는 대조적으로 중동 평화 협정의 역사는 1978년 이후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민주당 출신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의 중재로 켐프 데이비드 협정이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에 체결되어

중동은 평화의 새 장을 열었다. 이 협정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6일 전쟁에서 빼앗은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 양도하게 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된다(협상 대표: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이스라엘 메나헴 베긴 수상 [리쿠드당. 결과 사다트 암살]).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와의 첫 외교 관계의 정상화를 이룩한 후 평화 협상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에 공존하고 있던 팔레스타인에게로 넘어갔다. 과거에 비옥한 평야지대를 차지하고 있었고 무역로를 지나는 대상(大商)들에게 받는 세금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산악지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풍요한 삶을 영위하여 왔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변 강대국이 세력 다툼을 벌일 때마다 희생제물이 되었고 험거운 조공을 바치야만 했으며 역사 속에 사라지거나 혼혈민족으로 전락되곤 했다.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400여 년간 오토만 터키의 지배를 받았다. 이처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역사상 단 한 번도 국가를 창설해 본 경험이 없었다. 단지 이집트의 봉건 제후국으로 조공을 바치며 자신들의 명맥을 유지하였고 이스라엘이 건국된 후로는 국제 미아로 중동 지역을 떠도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

현재 해외에 330만 명과 팔레스타인에 200만 명, 이스라엘 안에 130만 명 등 모두 66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국가 창설에 대한 열망을 가속화하며 일명 ‘인티파다’(intifada)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의 3일 운동”을 일으켜 오슬로 협정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을 만들게 된다. 외세에 항거하지 않고 순응을 일삼아 온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땅의 날”을 선포하고 “떨쳐 일어서다”는 의미의 인티파다 운동을 전개하여 1987년 12월 9일 가자 지구를 시발로 하게 되었다. 사건은 귀경하던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을 극단주의자 유대인이 학살하는 데서 발단하여 전국으로 항거의 불길이 붙었다. 가자 지구와 유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1993년 오슬로 제일 협정 때까지 무려 3000여 명에 달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이 중 1000여 명은

이스라엘과 협조해서 민족을 배반했다는 혐의로 동족에 의해 숨진 사람들이다.

팔레스타인의 항쟁은 국제 여론을 불러일으켰고 급기야 이스라엘로 하여금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게 만들었다. 갈등과 테러에 지친 이스라엘 국민들은 6일 전쟁의 영웅이며 평화주의자인 고(故) 이즈חק 라빈 정부를 탄생시켜 그 후 계속된 협상을 통해 점령 지구 내의 가자, 여리고, 지닌, 툴카렘, 길길리아, 나블로스, 라말라, 베들레헴, 헤브론 등 9개의 도시를 반환하고 튀니스에 망명 중이던 아라파트의 귀환을 허용하였다. 그 후 처음으로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아라파트는 거의 90%에 가까운 표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이스라엘과의 협상을 이끌었다. 그 후 이스라엘 정부는 점령 지역의 34%의 땅을 팔레스타인에게 인계했고 추가로 7-8%의 철군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민족 간의 평화 협상을 주도해 온 미국으로서



는 아라파트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에 대한 미국 입장을 공식 천명하였다. 클린턴의 편지는 1917년 11월 2일 영국 정부가 행한 발포 선언과 맞먹는 귀중한 것이었다. 발포(Balfour: 영국 수상) 선언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 정부와 아랍인 정부의 건국을 동시에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발포 선언은 30년이 지난 1947년에 유엔 표결로 부쳐져 33표의 찬성과 반대 13표로 통과되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유엔의 안을 전적으로 지지하였으나 아랍권은 전면적으로 반대에 나서 다음 해인 1948년 독립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스라엘 국가를 탄생시켰고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 민족은 그 땅에서 쫓겨나야 되는 비극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서신은 이스라엘 지역 내의 팔레스타인 국가의 창설을 인정하며 이스라엘 총선이 끝나는 즉시 워싱턴에 3자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여 앞으로 1년 안에 모든 평화 협상을 종결짓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원칙적으로는 발포선언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51년 전의 아랍 입장처럼 아랍 국가의 창설을 탐탁히 여기지 않는 역설적인 입장을 보였다. 오슬로 협정 I은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주도되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이루어진 평화 협정이다(협상 대표 : 팔레스타인 아라파트-이스라엘 라빈). 1993년 9월 13일에 체결된 협정 결과, 여리고, 가자에 자치 지구를 설정할 것을 합의한 후, 이스라엘 군이 철수하고, 아라파트 의장이 가자 지구로 역사적 귀환을 하게 된다. 곧 이어 전개된 오슬로 협정 II는 1995년 9월 28일에 체결되어 요르단 강 서안 지구 7개 도시-지닌, 칼킬리야, 툴카렘, 세겜, 라말라, 베들레헴, 헤브론-에 자치 지구를 설정하며 팔레스타인 측에 양도되었다(서안 지구 2% 양도). 그러나 그 결과로 라빈 수상이 이스라엘 내의 우파 그룹에 의해 암살되고 우익 정권인 나타니아후가 등장하게 된다. 이후 나타니아후 정권은 팔레스타인과 일명 ‘와이 플랜테이션’ 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제2철군안(13.1%), 제3철군안의 범위, 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주요 쟁점인 예루살렘의 최종적인 법적 지위 결정은 지금까지의 갈등보다 더욱 더 미래의 중동 평화로 가는 길에 최대 걸림돌로 남아 있다. 이유인즉 회교도들인 아랍권은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소라는 이름의 '알콧' 으로 부르고 있고 유대인들은 성전 산, 다윗의 도성이라고 부르며 서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의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기보다는 평화를 염원하는 도시라는 의미 규정이 더 맞는 것 같다. 예루살렘은 3000년의 역사 속에 주인이 수시로 바뀌어 왔다.

자 공항건설, 안전 문제,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에 관한 것이었다.

중동 평화회담은 양측에 상당 액수의 경제 지원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스라엘은 와이 회담의 결과, 12억 불의 경제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 액수는 주로 이스라엘 군의 철수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었다. 나타니아후 정부의 등장 이후 평화 협상의 부진으로 이스라엘이 치른 대가는 9%에 달하는 실업률과 52% 외국투자의 감소, 이스라엘 통화(通貨)인 세겔의 15% 평가절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로서는 이번의 미국의 원조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였다.

한편 와이 회담으로 팔레스타인 측도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워싱턴 회담에서 미국 측은 40여 개국을 동원해서 팔레스타인 돕기에 나섰고 추가로 2억 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1967년 이스라엘이 6일 전쟁으로 점령할 때 당시 가자 지구는 인구 30만 명에 불과했고 가난과 질병으로 찌든 난민촌을 연상케 하며 70%의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곳이었다. 그러나 외신들이 보여 주는 오늘날의 가자 지구는 아름다운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와이 회담 결과 이루어진 열매 중 하나인 다하니아 공항의 개통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측의 검문 없이도 외국으로 자유롭게 나가게 된 것이다.

이집트의 경우 평화 협정 체결 이후 미국의 경제 지원과 중동에서의 역할 증대로 경제 사정도 좋아져 1980년대 초반 26억 불에 달했던 국민 총생산도 1998년에는 195억 불에 도달했고 그동안 여행객들에 대한 테러를 감행했던 회교 원리주의자들과도 타협을 실시하여 사형 대신 무기징역으로 감형함으로써 테러가 감소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평화회담이 양측에 경제적 이익을 준 좋은 결과도 있었지만 정치 지도자의 암살이나 실각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평화 협정 이후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은 과격 무슬림 단체에게 암살되었고



(1979) 이스라엘 라빈 수상 역시 우익 단체에 암살되어 평화로 가는 길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 나타니아후 수상도 와이 회담의 타결 결과로 정치적인 손실을 입고 실각하게 된다. 또한 바락 수상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56%의 압도적인 지지로 수상에 당선되어 1년 안에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갖고 출범을 하였으나 임기를 만 2년도 채우지 못한 채 팔레스타인과의 300여 명이 넘는 유혈 충돌로 수상직을 사임하게 된다. 바락을 무너뜨린 주요 이슈는 예루살렘 문제였다.

야당 당수로 있던 2000년 9월 28일, 아리엘 샤론 전 수상이 회교 사원을 방문하면서 충돌이 다시 시작된 양측은 500여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며 바락 정권의 퇴진을 가져온다. 그 후 정권을 잡은 샤론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당근과 채찍 정책을 계속 사용하였다. 일례로 요단강 서안지역 안에 일명 ‘안전 벽’(security fence)을 설치하여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았고 2005년에는 그동안 점령하였던 가자 지구에서 일방적으로 철군함과 동시에 가자 지구와 외부와의 접근을 근본적으로 차

단하는 팔레스타인 고립 작전을 계속 사용하였다. 가자 우선(Gaza First) 정책은 대외적으로는 팔레스타인과의 평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을 고립시킴으로써 팔레스타인 내부의 강경파를 등장시켰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은 전 부시 행정부의 중동정책 중의 하나인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얼마 전(2008.12-2009.1.16) 이스라엘 군은 전격적으로 가자 지구를 공격하였다. 이것은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내부의 회교 무장 세력인 하마스와의 갈등을 보여 주는 것으로 그 결과 팔레스타인 시민을 포함한 사망자가 1000여 명 이상, 5000여 명의 부상자와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비극이 일어났으며 현재 중동평화 자체가 깊은 수렁에 빠져 든 상황이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주요 쟁점인 예루살렘의 최종적인 법적 지위 결정은 지금까지의 갈등보다 더욱 더 미래의 중동 평화로 가는 길에 최대 걸림돌로 남아 있다. 이유인즉 회교도들이 아랍권은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소라는 이름의 ‘알콧’으로 부르고 있고 유대인들은 성전 산, 다윗의 도성이라고 부르며 서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의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기보다는 평화를 염원하는 도시라는 의미 규정이 더 맞는 것 같다. 예루살렘은 3000년의 역사 속에 주인이 수시로 바뀌어 왔다.

3000년 전 가나안 도시였던 예루살렘은 다윗 왕이 유대 정부를 세우며 이스라엘 도시가 되었다. 2586년 전에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그 후 2539년 전에는 이란의 지배를 받았으며 2332년 전에는 그리스에 의해, 그리고 주후 70년에는 로마에 의해, 그리고 313년에는 기독교의 지배를 받다가 630년 회교도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였다. 1099년 기독교의 십자군들이 전쟁을 통해 예루살렘을 탈환하였다가 1244년 회교도에 의해 다시 빼앗기고 1534년 터키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여 1922년 영국이 위임 통치할 때까지 약 400여 년간 예루살렘을 통치했다. 현대에 와서는

1948년 독립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절반인 서쪽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었고 요르단은 동쪽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다가 1967년에 일어난 6일 전쟁으로 예루살렘은 유대인에 의해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회교 사원은 아직도 회교권의 관리 하에 놓여 있어 분쟁의 씨를 계속되고 있고 2000년 9월 28일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충돌 역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유혈 참사였다.

기간적으로 보면 지난 3000년 중 560년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차지했고 기독교는 462년을, 이슬람교는 1247년을 차지했다. 현재 예루살렘의 인구는 총 60만 명으로 그중 18만 명이 아랍인이다. 또한 예루살렘은 동, 서 예루살렘으로 나뉘어 있고 서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 예루살렘에는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옛 예루살렘 성은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 구역으로 분할되어 있다

2. 최종 국경 협상의 주요 의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예루살렘의 지위와 정착촌 귀속 문제,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귀환 문제다. 현재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 유랑하고 있는 난민의 수는 300만 명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의 절반인 150만 명 정도가 귀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100만 명은 새롭게 창설되는 팔레스타인 국가 영토 내로 귀환하며 나머지 50만 명은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 영토 내로는 단 한 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그들에게 모두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라고 하면서 단지 이들은 돕기 위한 국제 기금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대부분 떠나올 때 집 열쇠를 아직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들이 하는 말 중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한 사람이 “당신의 모든 짐이 도난당했습니다”라고 말하자 그는 태연스럽게 웃으면서 “열쇠가 아직도 내게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점잖게 응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에 대해 “당신 집은 이전에 우리의 무너진 집에 허락 없이 세운 집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한다는 것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의 싸움의 전형으로 우리의 뇌리 속에 각인되어 있다. 중무장한 팔레스타인 골리앗과 초라한 막대기와 물매들이 전부였던 소년 다윗과의 싸움을 우리는 기억한다. 오늘날은 초현대 무기로 중무장한 골리앗을 닮은 이스라엘과 자살과 소총과 수제 박격포와 테모로 항거하는 다윗을 닮은 팔레스타인이 현대적 의미의 엘라 골짜기에 마주 서 있다. 양측에 깊이 파여 고인 상처의 피 값을 중동의 탈리온 법(‘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보복법)으로 찾는 두 민족 사이에 관람객으로 서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 조성욱 송실대학교(B.A.)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를 나와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Ph.D.)에서 공부했다. 지금은 충신교회 부목사와 중동문제연구소 소장으로 있다.